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歲暮三事의 勵行

一

支那事變下에 昭和十三年도 流水光陰 아프로 며칠남지아니하엿다 一年間을 回顧하면 實로 多事多端하엿다 그러나 日出事變生이라는말과가티 며칠남지아니한 이때에 當하야 特히 우리 一般이 實行할바의 서너가지 일이 잇다 그것은 첫재 우리 一般은 今次의 送舊迎新에 잇서서는 徹底的으로 二重過歲의 弊害를 打破하자는말이다, 이點에 關하여서는 數百年 지켜오던 習慣이 저저서 陽曆을 公式으로 施行하지 近半世紀나 되지만 아직도 陰曆過歲를 하는사람의 數爻가 만흔것이다. 當局에서도 이二重過歲가 업도록 미리부터 注意하고 指示한바 잇다 그러나 一般民庶가 二重過歲의 弊害를 알고 陽曆過歲를 徹底히 實行하여서만 效果가 잇슬 것이다. 事變第二年을 마지하면서 勤儉節約과 赤誠報國의 必要는 더욱더욱 深度를 加하고잇는때이다 어찌 二重過歲를 하므로써 冗費浮用을 만히 내일수가 잇겟는가 今年은 누구나를 勿論하고 한사람도 빼지지안코 꼭 陽曆過歲를 實行하고 絕對로 陰曆過歲를 廢止할것이다.

二

亡靈은 用祭하고 傷病을 慰治하는것은 人之常情이다 하물며 死亡이 國家를爲하고 우리를 爲함이리오 傷病이 國威를爲하야 엇지 우리로서 用祭의 念이 업스며 慰問의 誠이 업스랴? 戰歿將士와 一線傷病兵卒에 對하야서는 國家에서 禮遇의 典禮가 잇다 그러나 이 送舊迎新하는 게제를 當하야 死傷病의 將士에對한 馳念致慰는 一層더 深刻한바가 잇슬것이다 또出征軍人과 軍屬의 家庭에 잇서서도 이게제에 少一 少二의 寂寞이 잇슬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傷病의勇士를 慰問하고 出征軍人의 家族을 慰問하는것이 當然의 할일이다 慰問袋 慰問金 慰問品等의 가진 形式이 잇겟지만 要는 赤誠으로 그들의 苦痛과 寂寞을 慰勞하는데에 잇다 心不在焉하면 百千의 形式이 何等所用이 업다 그런즉 誠心誠意로 이送舊迎新之際에 慰問을 實行할일이다.

三

셋재로 우리가 이제 實行할것은 貧窮無依로 飢寒에 驅迫되는 불상한 사람들을 爲하야 救恤의 誠을 다하야만 할것이다. 京城府에서는 歲末同情金募集의 事가 實行되고 또 救世軍은 慈善鍋를 街頭에 걸고잇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民間에서 社會的施設로 救恤의 機關이 업는것은 한遺憾事라고 아니할수가업다 이와가튼 時期를 當하야 鰥寡孤獨 病痛不具者로써 無依無托하고 불상한 사람들에게 한숟의밥과 한가지의옷을 주어서 그들도 過歲를 安穩하게할 同情心이 업서서는 到底히 人間으로서의 일이 아니다。그러므로 우리는 處地를바꾸어 생각하고 他人을爲하야 自我를 조금 犧牲하는 善을 行하여야 되겟다 歲色이 紗薄하여젓스니 救恤의 事業에 誠과 熱을 내야만 되겟다 世上에는 할일이 만히잇개지만 이와가티 一事一事式 敢行하는 것은 조흔일을 만히 行하는 所以가 되는것이다. 歲暮를 當하야 우리는 以上에서 말한바의 三事를 徹底히 勵行하기로하자 이것이 稀薄어요 積德이 될것이다.

支那事變戰果總計

事變以來一年有半 敵軍損害二百萬

戰線全長은 "西部戰線"의 約四倍

皇軍犧牲도 四萬七千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에서는 二十六日事變發生以來 今年十一月末에 이르는 十七個月동안의 彼我損害總計及 鹵獲品調査의 結果를 發表하엿는데 이에 依하면 敵의遺棄屍體만도 上海戰의 八萬一千, 南京戰의 八萬三千, 徐州戰의 十一萬三千, 北支方面掃蕩戰의 九萬九千, 武漢攻略戰의 十九萬五千等을 비롯하야 總計實로 八十一萬三千二百名에 達하야 敵에준 損害總計는 적어도 二百萬에 達할것으로 推測되며 그間護國의 꽃으로化한 我忠勇將士數는 四萬七千百三十三名이다 그리고 그間의 主要한 鹵獲品數는 現在判明된分만 如左한데 實際는 이보다 훨신多數에 達할것이다

▲小銃 二十萬八千▲機銃 一萬一千▲靑龍刀 一萬二千▲野(騎)山砲 六百八十▲迫擊砲 一千二百▲戰車 五百六十▲裝甲車 二千一百▲小銃彈 一千二百六十萬▲手榴彈 一百二十萬▲砲彈 八十一萬七千▲迫擊砲彈 百七十一萬八千

그리고 日蘇戰及 世界大戰과 今次支那事變과의 戰線의比較가 이와同時에 發表되엿는바 이에依하면 十一月末의 北中支戰線은 杭州附近으로부터 永修 岳州 早市 信陽 正陽關 將城 開封附近을 經하야 山西省境에 미처서 新安東北方地區에 達하야 그全長은 約二千九百七十五키로로 이를世界大戰에 數個大國이 參加한西部戰線의 約七百九十키로에 比較하면 約四倍에 達하고 又南支方面戰線도 四百二十五키로로 日露役의 奉天附近戰線 一百三十키로보다 훨신크다 占據地域은 察哈爾 綏遠 河北 山東 山西 江蘇 安徽全省及河南大部 浙江의 一部 江西一部 廣東一部로 面積이 一、五一五、六九六平方키로에 達하야 我全土 六七五、三六五키로의 一倍이며 占據地以外의 支那本土 三、○四五八八平方키로의 百分之四十七에 當하다 又人口는 一六九、五○九、○○○人으로 占據地以外의 支那本土의 人口 二四八、三七一、○○○人의 百分의 六十八에 該當하다

第七回論功行賞

陸海軍六千三百九十九名

【東京電話同盟】事變第七回論功行賞(海軍은第六回)은 上奏御裁可를 經하야 二十六日午後七時四十分 賞勳局及 陸海軍兩省으로부터 發表되엿다

今回의 行賞은 總人員 六千三百九十九名內 陸軍六千三百五名(金鵄勳章五千八百九十五名內 殊勳甲十六名)海軍九十四名(金鵄勳章七十五名內 殊勳拔群十二名)으로 陸軍은 昨年七月二十五日부터 今年九月二十二日까지 北支 中支 上海附近의 戰鬪地에서 名譽의 戰死를 遂하고 又海軍은 昨年八月二十一日부터 今年七月八日에 이르는 사이에 揚子江沿岸 連雲港 汕頭 南支沿岸 蘭州 漢口孝感 南昌 上海附近의 戰鬪에서 名譽의 戰死를 한者들이다 今回는 새로戰病死者도 行賞의 恩典에 浴하엿다

第六回海軍論功行賞

【東京電話同盟】至嚴하옵신側의 御裁可를어더 今日支那事變海軍關係戰歿者第六回論功行賞이 發表되엿다 今番은名譽의戰死者以外 事變地病死者及事變地에서發病하야 內地送還後 病死者의一部도加하엿다 殊勳者中의 拔群者로서 優賞된者는十二名이다

國民의 赤誠獻金

四千七百二十七萬餘圓

【東京電話同盟】今次事變勃發以來 이미一年有半 暴支膺懲에서 長期抗戰에로 更히 長期建設로 綱領은變하엿스나 我國不動의 大方針과相俟하야 國民의 赤誠에는 變함이업시 擧國하야 國防獻金을하고 或은 恤兵金에獻하야 將兵에의 따뜻한 『慰問袋』가 되고 이것이 皇軍의兵器가되고 第一線陸軍者에 寄附된 此等銃後國民의 赤誠은 國防獻金 三千四十八萬四千四百八十九圓七十一錢 恤兵金 一千二百七十六萬五百八十圓五十二錢 興亞技術獎勵金 三百三萬八千四百四十七圓五十三錢 合計四千七百二十七萬二千五百十七圓七十六錢의 多額에 達하고잇다 그리고 慰問袋 一百六十二萬二千八百七十個 銀紙八百七十四萬二千百九十四匁 鐵鋼屑六十一萬一千八百八十四匁 其他貴金屬 二千五十一萬二千六百六十六個의 巨額에 達하고잇다 將兵으로서 第一線에 出征活躍하는 사람은 勿論 銃後에잇서서 國民의 熱誠은 이와가티 感激케하고잇다

衆議院의 勅語奉答文

【東京電話同盟】二十六日衆議院本會議에서 可決된 勅語奉答文은 如左하다

恭惟히 思惟하옵건데 車駕親臨하사 玆에 第七十四回帝國議會開院의 盛儀를 擧行하옵시고 優渥하옵신 勅語를 賜하옵시니 臣等 感激에 不勝하오며 이제 皇軍忠勇은 一層威武를 宣揚하며 國民은 去益熱烈히 忠誠을다하야 東亞新秩序의 建設 日滿支一體의 安定에 努力할 臣等 삼가 協贊의 任을 다하야 上으로 陛下의 叡慮에 奉應하옵고 下로 國民의 委託에 副하옵을 期함 衆議院議長 臣 小山松壽 誠恐誠惶 삼가 奏上함

二十七日의 貴衆兩院日程

【東京電話同盟】▲貴族院 午前十時本會議를열고 삼가勅語奉答文을可決한후 全院委員長選擧를 行한다음 陸軍海軍將士에對한感謝決議案 戰死者에對한 敬弔決議案을上程 이를可決 ▲衆議院 陸海軍兩相으로부터 答辭가잇고 一日休憩, 休憩中 各常任委員選擧를行하고 再開後, 議長으로부터 勅語奉答을奉呈한旨를報告하고 散會

國防産業中心의 生産力擴充計畫要綱決定

【東京電話同盟】企劃院을中心하야 案中이던 生産力擴充計畫案이 二十六日午後二時부터 農相官邸에서 開催 近衛總裁、瀧企劃院總裁以下 委員出席 先頭에 近衛首相으로부터 人事가 잇슨後 瀧總裁로부터 第一號 生産力擴充에關한件을 附議 靑木企劃院次長으로부터 總括的說明이 잇섯고 同産業部長으로부터 補足的說明이잇슨後 審議에 드러가서 阪本次男 末松偕一郎 有賀光豊 池尾芳藏諸氏로부터 燃料問題 對滿關係及 本計劃의實施에伴할 民衆에의 影響等에對하야 各各意見을 述하고 結局原案대로 可決 同四時 二十分散會 하엿다 그리고右生産力擴充計畫은 二十七日 閣議에報告하고承認을 求할 터이다 生産力擴充計畫要綱은 如左하다

生産力擴充計畫要綱案

本計畫은 現下內外政勢로보아 今後東亞의 安定勢力인 我國國力의充實强化를圖謀하야 我國運의將來의 飛躍的發展에備하고저 重要한國防産業及 基礎産業에잇서서 昭和十六年度를期하야 所要의目標에 達케함으로 日滿支를通한 生産力의綜合的充實計畫을 確立하야 萬難을排除하고 그達成을期하려는것이다

一、根本的方針

(一) 本計畫의範圍는 國力의基礎가되는 重要産業에 主眼을 두고 國民消費生活下의 重要物資充足에對하여도 考慮하야 特히統一的計畫下에 急速한擴充을 要할重要産業에 이를限定함

(二) 本計畫은 日滿支相互間의緊密한連絡調下에 日滿支를通한 綜合的計畫을 樹立할方針에서 我國重要産業에對하야 生産力擴充計畫을樹立함

(三) 本計畫은 重要資源에對하야 我勢力圈內에 잇서서의 自給自足을確立에 努力하고 有事之秋에도 可及的速히 第三國資源에 依存케하지안토록할 을目標함

二、計畫産業

本計畫에서 生産力擴充을要할것으로서 立案한 産業은左의十五品目으로하고 上記根本方針에 從하야 劃期的生産擴充을꾀함으로써 綜合國力充實을期함

鐵鋼、石炭、輕金屬、非鐵金屬、石油及 그代用品、曹達及工業鹽、硫酸암모니아、펄프、金、工作機械、鐵道車輛、船舶、自動車、羊毛、電力

三、實施方策

本計畫遂行은 立案의 本旨에 基하야 官民이 一體가되여 强固한決意와 完全한協力下에 國家의 全力을傾到하야 그實現을期할지며 따라서 政府는 本計畫實施에當하야는 萬般의 措置를講究하야 計畫遂行에 蹉跌이 업기를期함을 要하나 이目的을達하게하야 政府는 從來부터 實施한 産業振興에關한 諸般制限及施設에對하야 極力有効適切한 運用에 努力하는 同時에 本計畫이 急速度의 生産力增大를 期하는 點에 鑑하야 計畫의 實行을 一層促進擁護하기爲하야 各産業實情에 應해서 事業의 統制及助成, 技術者 勞務者의 供給養成, 金融 必要한 資材의 給與等에 對하야 特別한 處置를講究하기로함 右方策에 基하야 必要한때에 잇서서는 法令制定及 國家總動員法發動의 處置를行함 그리고 本計畫實施에際하야 物資動員計畫과의 關係에 對하야 詳細한 考慮를하기로함

그런데 滿洲國에서는 압서 昭和十六年(康德八年度)를 目標로한 産業開發五個年計畫을 樹立하고 只今그實施過程에잇고 또北支에서도 昭和十四年度부터 昭和十七年度에이르는 生産力擴充計畫을企圖하고 方今銳意準備中이다 그리고 이計畫은 本計畫이 確定을 본때에는 日滿支를 通한 綜合生産力擴充計畫의 見地에서 修正을 加할境遇도 잇슬 것이다 滿洲國及 北支生産力擴充計畫中 日本과 特殊한 關係가 잇는것은 如左하다

一、滿洲國産業開發五個年計畫 鐵鋼 石炭 輕金屬 非鐵金屬 液體燃料 曹達及工業鹽 硫酸암모니아 펄프 金 工作機械 自動車 羊毛 電力

二、北支生産力擴充計畫 石炭 液體燃料 曹達及 工業鹽 羊毛 電力

數十機大編隊로 長驅重慶을空襲

【漢口二十六日發同盟至急報】中支軍報道部午後五時十五分發表 陸軍航空部隊는 現在의 敵의 戰略政略의 中樞로서 最近 支那의 重要根據地인 重慶을 空襲하야 이것을 潰滅하기로 決定하고 十二月二十六日 武漢地方의 天候回復을 利用하야 數十機大編隊로 이곳을 進攻하엿다 即午前十時半田中、服部、今井、北村、古村各部隊長은 堂堂히 그陣頭에 搭乘하야 部下를 거나리고 勇敢히 途中惡天候를 克服하야 敵의防空火器를 冒하며 午後一時半重慶市上空에 達하야 同所에 多數의 爆彈을 投下하야 敵에게 多大한損害를 與하고 同五時 全機無事히○○에 歸還하엿다 此間某機가 途中에서 發動機不調에도 不拘하고 片發動機로써 勇躍七百『키로』 翔破 其重要任務를 達成한것은 全搭乘者의 技倆優秀와 材料의 優秀를 말하는것이다

004319

日蘇漁業暫定協定 年內締結全然無望

決裂責任은蘇聯側에

【東京電話同盟】二十三日의 日蘇漁業協定에關한 第八次東鄕、리트비노프會談에서 東鄕大使는 旣報한바와가티 安定漁區確保의 不合理를 指摘하는同時에 局面打開次 漁區接收에關하여는 蘇聯의 希望을 어느程度까지 容認하야 代漁區를 提供하도록 要求한바잇섯다 同時에 我提案에 對하야 蘇聯側이 誠意를表示치안코 無條約狀態를 出現시키면 이에 基한 一切紛糾의 責任은 蘇聯側에 잇는 旨를 말하야 同日中에 蘇聯側의回答을 要求하고 同夜西大使館參事官은 시로노프極東部長을訪問 右要求에基하야 蘇聯側의回答을要求한바 시로노프部長은 『東鄕大使의提案은 何等새로운問題를 提供한것이아니다』 그때문에 不得已 暫定協定締結交涉에 入한것으로 一步도讓步할수업다 最後的인것으로 事態가이가티 되면 我方의 現狀維持要求는 不合理한바로서 이가튼暫定協定도 不可能케한 責任은 專혀蘇聯側이 條約上의 國際信義蹂躪의 不法行爲에 基한 것으로 그責任은 全혀 蘇聯側이 저야할것이明瞭하다 我國方針인 年內暫定協定締結은 이에 全然 絕望케되엿다 元來 我方의 要求는 포-츠머쓰條約에基한 漁業本條約의 締結을 要求한것이다

斷平處置를要望

關係各團體重大決議

【東京電話同盟】日蘇漁業條約改訂交涉의 年內調印도 絕望케되어 我北洋漁業權은 極度의 不安狀態에 빠지게 되엇스므로 農林省에서는 二十六日午後一時부터 赤坂三會館에 帝國水産會、大日本水産會、全漁業聯、母船式蟹漁業水産組合、海洋漁業協會、北洋水産組合等 民間有力團體 首腦者의 參集을 請하야 農林省으로부터 田中水産局長, 藤田同盟參事官, 課長出席하야 먼저 田中局長으로부터 條約改訂交涉經過에 關하야 詳細報告說明을하고 이어서 今後의 對策에 關하야 重要協議를遂行한結果 我水産團體의 總意로써 斷乎蘇聯의 不信을 排擊하고 權益確保에 갓까지 邁進하기로 意見의 一致를 보앗다 따라서 이結果에 依하야 前記六團體는 同日左와 如히 共同決議를 行하고 二十七日 近衛首相以下關係各大臣에 對하야 이것을 陳情하기로 되엇다

決議 今次日蘇漁業條約交涉에對한 蘇聯政府의 態度는 我北洋漁業權을 根底로부터 縮減할意圖가 極히 明瞭하야 漁業權更新에 關한協定의 缺如를 招來코자한다 政府는 本質에 비처 漁業權의 光輝잇는 歷史와 權益擁護의 澎湃한 輿論을 한 斷乎蘇聯政府의 不信行爲를 排擊하고 所信에 邁進하야 權益의 確保를 期코자한다

貴族院各委員 勅語奉答文起草協議

【東京電話同盟】貴族院에서는 二十六日開院式終了後午前十一時半부터 院內議長室에서 松平、佐佐木正副議長、各派交涉委員及各部理事의 聯合協議會를열고 開院式에 下賜하옵신 勅語奉答文起草에 關하야 協議한後 午正에 散會하엿다

感謝及敬弔 決議案廿七日上程

【東京電話同盟】衆議院에서는 二十七日의 本會議에 陸海軍將士에 對한 感謝決議案及 戰死者에 對한 敬弔決議案을 上程 可決할터인바 決議案의 主旨는 民政黨의 櫻井兵五郎, 政友會의 若宮貞夫氏가 各各說明에當하기로 決定하엿다 兩相으로부터 答辭가 잇슨後 三土忠造 小泉又次郎兩氏에對하야 永年勤續表彰決議를 行하고 이로써 兩院은 年內의 議事를 全部마추고 二十八日부터 明年一月二十日까지 休會할터이다

貴院豫算委員長 渡邊子로內定

【東京電話同盟】貴族院豫算委員長은 渡邊千冬子(研), 岡部長景子(公)중 渡邊子로 內定하엿다

桐柏爆擊事件等에 米政府帝國에抗議

【東京電話同盟】그루―駐日米大使는 二十六日午後三時外相官邸로 有田外相을訪問하고 지난八日의 會見에繼續하야 帝國의 對支政策에關하야 會談한 同時에 去十一月桐柏의 爆擊事件其他 十數件의 權益侵害事件에關한 米政府의 抗議書를 傳達하엿다 帝國政府로서는 右抗議書에 對하야서는 調査完了한 後 回答을하기로되엿다 또 크레기 英大使도 그루―大使에 이어 同五時부터 有田外相과 會談을 하엿다 有田外相의 方針으로서는 아프로 좀더 自由討議에依하야 意見交換을 繼續하야 帝國의 不動根本方針을 英米兩國에 徹底히할것으로 보힌다 今日會談에잇서서도 意見交換의 重點을 避하기위하야 米國의 對支借款 英國의 輸出保證制度問題等에 言及하지안흘모양이다

汪의香港着確實

【上海二十六日發同盟】『하노이』發二十六日早朝着 電報에依하면 汪精衛는 『이―산』港에 到着豫定이엇다한다 何如間汪精衛가 『하노이』로부터 香港에 向한것은 거의 確實하다 宣傳部長 周佛海의 出國說과더부러 汪의腹心인 前實業部長 陳公博도 最近病을 理由로 歸鄕한以來 消息을 끈코잇다고 傳하는때 汪의뒤를쫓차서 陳도 同一行動을 取한것으로 보힌다한다 (寫眞은 汪精衛)

中國共産黨에게 張君勱公開狀發送

【上海二十六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交通部長 張公權의 兄으로 國家社會黨의首領인 張君勱는 二十五日 國府機關紙中央日報에서 中國共産黨毛澤東에 보내는 大要如左한 公開狀을 發하야 共産黨及黨軍의 現狀을 痛烈히 攻擊하야 汪精衛離脫後의 重慶에 一大衝動을 주엇다 共産黨은 陝西北部의 特別區域에서 獨自의 行政權을 行使하고잇다 萬若 모든政黨이 各其特別區域設置를要求한다면 國家의 一體性은 큰危險에 빠질것이다 그러므로 共産黨은 모름지기 右區域의 行政權과 共産軍의 指揮權을 即刻蔣介石에게 讓渡하여야한다 中國共産黨은 일직이 救國抗戰에 全精力과 全努力을 傾注하여야 한다

辭令

十二月二十六日附發令(朝鮮總督府)

總督府全羅北道部長 櫻井春吉

任總督府道理事官(八等) 命全羅北道在勤 總督府鐵道局副參事 馬淵謙三郎 益田周道

(各通)同 總督府稅務監督局副事務官 金信徹

依願免本官 以上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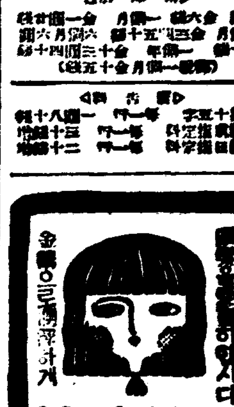
◆羽根氏三氏(朝鮮總督府道警視 京城本町警察署長) 新任人事次 廿六日來社

夕刊後市況 廿六日

◆各地期米 後止◆ 大阪 納會 木浦 納會

◆各地商品 後引◆ 橫濱生糸 納會

金鶴香油 金鶴으로潤澤하게



中央公論 新年特大號 P.740 ¥1.50 東京·丸ビル 中央公論社 發行

卷頭言 われらの昭和十四年

メイファーツ 沒有子支那(グラビヤ) 撮影 金丸重嶺

(卷頭論文) 東亞協同體の理念とその成立の客觀的基礎 尾崎秀實

成熟する知力 佐藤信衛
戰時工業と女子勞働者 渡邊多惠子
國民組織問題の檢討 佐佐弘雄
東亞協同體の論理 三枝博音
第七十四議會展望 阿部眞之助
法律文化三十五年 牧野英一
一國一黨の國體學的批判 里見岸雄
新しき陸軍の態勢 伊藤金次郎
苦惱する歐洲「新秩序」 木下半治
占領地區經營の諸問題 在上海 中西功
ソ聯の現狀と今後の政策 モロトフ
北支經濟建設への積極的見解 在北京 南河馨
喰はれる印度支那 多賀善彥
上海「租界」と日本人の「認識」 在上海 杉村廣藏
エルサレム回顧 笠間杲雄
六十億軍事費の恒久化と金融統制强化の必然性 內山德治

原田熊雄 西園寺公隨談
評傳 澁澤榮一 土屋喬雄
源氏物語の刊行に方って 嶋中雄作
源氏物語序 谷崎潤一郎
谷崎源氏に寄す 山田孝雄
小松清 アンドレ・ヂイドに會ふ
三升家小勝 身の上噺
一月 公論 新聞 ラヂオ 映畫 演劇 スポーツ 風俗

奇蹟と常識 正宗白鳥
赤露極東監獄を語る 相見富次
新春漫語 鹽野季彥
出雲まうで 土居光知
相撲雜筆 美濃部達吉
隨筆歲時記 森田たま
玉錦の死と春場所 彥山光三
北京のお菓子 村上知行
勸酒を語る周作人
依願退職 石坂洋次郎
大部屋以前 中村翫右衛門
東京だより・北京だより・上海だより
烏鷺神髓 本因坊秀哉
街の人物評論 (久原房之助・三木淸・鈴木貞一)
天國ビルの齋藤さん 山之口貘
(歌) 齋藤茂吉・川田順・釋迢空
柿の實抒情 神保光太郎
(句) 高濱虛子・小澤碧童・臼田亞浪・中村草田男

小說 武漢作戰 320枚 石川達三
小說 還らぬ中隊 318枚 丹羽文雄

正義が不義を支那海の沿岸からして中原の彼方へ驅逐したこの二十世紀の戰爭の構造とモラリテ、および、果敢にして謙虛なわれわれの將士が、見事な新しい文章様式でしかもずつしりと書き貫かれた。戰ひの唯中にある民族、生きてゐる戰場、が一萬二千八百字の中に集約せられて秒速六十米の颶風のやうにわれわれをうちのめす!

徹天之恨은풀엇스나 막대를일흔외로운身勢

開眼의기쁨을말하는金敬淳少年(一六)

벙어리가답답할까? 장님이더갑갑할까? 대답해이 하나에다 숨을애기고 거리가는 장님을 볼때마다 가엽슨생각보다 칙은한생각이 압서나는것은 인정일것이다 벙어리라고 장님보다낫것이무에잇고 장님이 벙어리보다 면한것이무에잇스랴! 가튼땅에 가튼인생으로태여나서 왜남과가치 보지도못하고 듯도못하고 말조차못함가하는 울분이야말로 이들의공통된 저주이며 서름일것이다

여기에압못보던 가련한소년이 잇서다 그는기구한운명을 구세군육아홈(救世軍育兒部)에서 금년봄에 제생원맹아부(濟生院盲啞部)로 넘어간고아로 금번에위대한과학의힘을입어 광명을 차진김경순(金敬淳)(一六)소년이다 압못보던 장님이 눈을떳다는김소년을만나 보려고 신교정(新橋町)에잇는 제생원맹아부를 차저가니 눈을떳다는 소년은두명중한명은 기쁜남어지에 자랑하려고고향으로 부모를 차저가고 김소년만 기숙사에 남어잇다고 한다이소년은 눈뜬것을 보이려고자랑하려 갈고도업나하고 선생의안내를 바다다른 장님학생들과기숙사에 남어잇는것을 차즈니낫서서사람이 이상한듯 며칠전까지 감겨잇다던 눈을크게뜨고두리번 두리번 처다본다 참으로 신기하지안흔가 언제눈이 머러젓느냐 하도시 소년은나와가티 갓텬동행인까지 번가리처다보지안는가 기사가 놀랜것도우연한일이 아니다 눈뜬사람보고 못기거북하면서 책상우에 노힌책을 가르치고 보이느냐고 물엇더니 고개를끄덕어린다 창박게로 내다보이는 푸른하늘 입새는 떠러젓스나 검길이 자란 느는나무 기와집등 오뚝손 전기서대 어느한가지가 이소년에게 신기하지안흔것이잇스랴 못느는기자의눈에 어리는조모도 이순간엔 신기만해보인다 나무를 가르치며 보이느냐고 물엇더니 역시 고개를끄덕어린다 전기선대를 가르처『저건무어냐』하고 무럿더니 모른다고 고개를흔든다 보이기는하나 이름을 모른다는것이다 모두이치아닌가 못는기자가 어리석엇다 어려서부터 보지못하던것을 이름알리가 업지안흔가 가리가던이가 주머니에서 철필을 끄내보이고 무엇이냐고 물엇더니 유심히보더니 손으로만지고서야「만년필이요」한다 눈을뜨고보면서도 손으로만지고야 아는것이다 눈으로 보고 물건이름을 배운것이 아니고 손으로 만저서 촉각으로배웟기때문에 그버릇이 눈뜬뒤에도 남어잇섯다 소년의눈은조금도한곳에 두지안는다 역시두리번두리번 바안으로 박갓으로 회회돌나보다가도 각갑을 내다볼때는 눈알을 집중된다 눈이부시는모양갓다 수집어하는것을 보앗다 기자와 다른가는문답을하엿다

문「못보던때와지금과 가상이어떠한가」

답「그저시원하고 기뿐이예요」

문「집이어데가」

답「집이업습니다 어려서부모와 헤여저 지금어디 사시는지세상을떠나섯는지도 모릅니다」

말을마치자마자 동근 눈에서 술기술기 눈물이뚝뚝떠러진다 이기쁨을가지해줄 부모할 자나깨나 착각잇는것이다 더욱기가 떠해서 다시만나기를 약속하고 도라올때는 기사의눈도도거워젓다 (사진은 책을보는김소년)

飮酒少年兩名檢擧

未成年禁酒禁煙法으로處斷 술집主人도嚴罰方針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이 조선에도 실시되기는하엿스나 대개처벌주의보다는 교화주의를 힘써서별로 그위반자가 적발된예가적엇는데 이십사일밤 서대문서원이 두명의적박, 어린사람에게 술을파는주인까지 서명을인치하엿다 그들은부내내수정(內需町)삼십사번지김영선(金榮善)(一七)과 동정삼팔번지 전길원(田吉源)(一七)두명으로서 화천정(和泉町)구십사번지 박진영(朴鎭永)의 술집에서 술을먹는것을 서대문서원이 발견체포한것인데 이상두명에게 번연히 안될줄알면서도 술을판술장사도 엄중처벌을할터이라고한다

四人對遇改善會議

改正한監獄令의實施압두고 全朝鮮刑務所長召集

최근 형무소재감자의 처우를 개선할필요를 느끼며 · 지난이십사일부로 감옥령시행규측을 개정공포하야 오는 일월일일부터 이를 실시하게되엿는데 이개정법령으로써 재감자의 처우를개선하는동시에 로동시간도 한시간을더 연장시키기로되엿다 이와가티 재감자로동시간의 연장을비롯하야 시국하의 형무소작업의 경영에대하야 여러가지재검토를할 필요가잇슴으로 총독부에서는 각형무소장과 작업주임을 오는일월십육일부터 이틀동안 소집하야 시국하의 형무소작업의 대응책에대하야 심중협의를 하기로되엿다

延專三敎授起訴

昨日豫審으로廻付

지난십오일 서대문경찰서로부터 치안유지법위반등의 유죄의견으로 경성지방법원검사국에송치되여 그간동법원 장기(長崎)검사의 취조를받어오던 연희전문(延專)교수 이순탁(李順鐸) 백남운(白南雲) 노동규(盧東奎)등 삼명은 이십육일 기소로결정되여 동법원예심에 회부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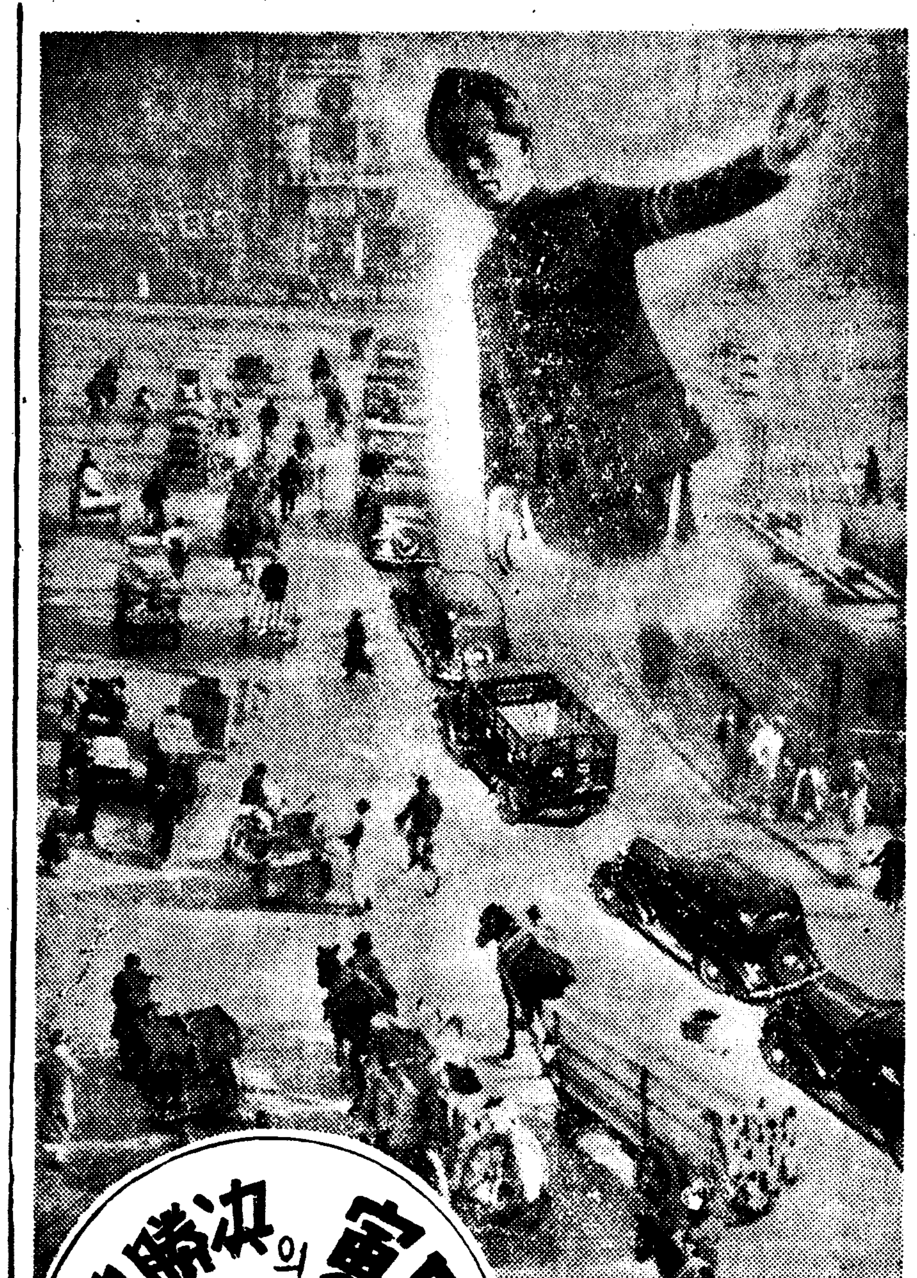
學生울리던 詐欺犯被捉

제비뽑기로 학생을울리던 자가 경찰에 잡히엿다 이십오일 오전열한시경 종로이정목 삼십삼번지아페서 북청(北靑)출생에 귀향도중인 송도고보생 김모를상대로 제비뽑기를하야 오원을 빼서먹다가 종로서원에게 발견되여 체포당하엿는데 그자는 홍제정(弘濟町)일백사번지의이호 김석준(金石俊)(二一)으로서 취조한결과 이러케 어린학생을 상대로 제비뽑기를하야 돈을편취하는것이 상습으로 판명되여 유치취조중이다

年末海陸輸送陣

陸路―釜山、新京間에臨時列車 海路―關釜連絡船總動員運航

【慶南支社發】부산부두는 연말을 당하야 회객홍수로 매우잡답한 현편인데 철도당국에서는 이에대한 해륙수송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야 이십사일부터이십삼일까지 경성, 부산간 이십칠일부터 삼십일까지 신경또는 봉천부산간에 부정기임시열차를 운전하야 유치의 수송력을 증대하는동시 관부간에는 대형소형의 연락선을 총동원하야 이십사일부터 삼십일까지 정기선외에 임시선한척을 증배하고 이십사, 이십육, 이십구, 삼십일의 오일간은 다시 두척을 증가하야 여객홍수를 완화하기로되엿다한다.



寸刻을아끼는맘에 一步一步焦燥와緊張

무인(戊寅)년도 저무럿다 이제면칠밤만자고나면 저불국사(佛國寺)의 제야종(除夜鐘)소리가 라디오를통하야 왕생무인(往生戊寅)이 비저논 새역사 발전의 감격을 동반구(東半球)에 드릴것이다

가튼날이오 마찬가지 달이로되 섯달이오 금음날이면 하해의모든 셈을 마아버리라 사람마다 바뻐하야 성미는 려때업시 조급해진다 이것은 스스로 거름거리에까지 나타나서 어딘지 저절로 섯달이라는대목의 초조가 거리거리에 흘러넘치는것이다

……◇……

여기는 장안에도 한복판 종로네거리, 사람의발뿌리에 질설으로구루마, 자전거, 자동차의 경적속에 석겨진 차고매운 긴장과초조의 모습을 그려본다

따르릉!……거리의 명령자 꼬·스톱이 새삼스레 영악스러 소리를지르며『섯거란』을표시한다 코끼리처럼 큰 몸집의교만을가진 뻐스 전차도 제멋대로 멈처야하고 귀공자가티 매끈한 바카·드자동차도 아니꼬우나 도리업시 복종해야한다 하물며 경박한 달구지쯤이야 이 엄숙한명령을 웅서으로 어길수도업는터요 천생막버리 구의 팔자를 면치못할 자전거쯤이야 더할나위도업나 더구나 한거름압서『진행명령』의 은혜를입은 월급쟁이 이를 바라만보면서 발이나 동동굴리지, 멀수업는 빗나이의 꿈아지잠은 차타리 수한편이 아니겟느냐

……◇……

따르릉……『가거란』의 호에 해방된 금속대가 새삼스레 분초를다아까워하야. 제각기 제소리를 지르고 제비뽑에 골몰하면서 전차자동차 구루마 자전거 사람의 종합경주의 스타ㅡ트다 허나 웅덩이 아니하나 아무리거름을 종총지기로 가는세월을 잡을재간업스매 밀경 됨은 낡어버린재 올라리 미레 상심케 차옥이아니겟느냐

(將暮街頭의交通圖)

스포ー츠

朝鮮對關東 蹴球戰評

【甲子園電話同盟】前半에關東은 先制點을 背後에지고 攻擊에나아갓스나 그得意의『패스웍』은바람에거실러서 뿔이빗나가려다오면 朝鮮이잇는 朝鮮選手에 밀려서 攻擊도 헛되이 마치엇다 朝鮮軍의 攻擊은 밀고러 뿔을노코 짱은패스로 連絡하야 패스웍이라는것보다도 오히려 個人技를 살리는 方法이라 强風에 向하여서도 意外로 根氣잇는 攻擊을하야 前半에는 風上에잇는關東軍이 도리여 劣勢한듯하엿다 前半唯一의 得點은 朝鮮軍逆襲의 形勢에잇슬때 RH의패스를하ー포라인 附近에서뿔을받어 그대로『페날티에리아』附近에서長蹴한것인데 RW金成玗의 殊動이다 그런데前半에 關東軍의 OF一線이 突入하여야할것을 一部은 和氣로 드리블도하지안코『피봇트』로서의 投蹴만을敢行하야 其後의 패스는 바람에흘러서 때때로 失敗하엿다. 關東軍前半의 不振은 OF一線와 RH가 個人的으로 뿔을몰린까닭이다 後半에잇서서는 前半과는反對로 關東軍이 風下에잇스면서도 全般의活動은 活潑하야 패스웍이 보이며 四十五分間 거의關東이 優勢한 게임을 遂行하엿다 六分에 一次 關東軍前에서 混戰하다가 十五分까지 關東은 攻擊에나아갓는데 그동안 九分頃에 强蹴이『바ー』를맛고 튀어나오되여 得點을 失하엿다 여기서 得點을하엿던들 形勢는 變하엿슬는지도모른다 朝鮮은 二十九分에이르러 RH長蹴을 關東軍GK津田의손으로 抛出된것을 K바드러 나온것을차서 그後에 二對一로 스코어는 버러젓다 그後에 得點한것은 RF吉田의失點을 GLW金容植 突하야 또一點을加하니 三對一 其後關東은 猛攻擊에나아갓스나 二FB制를 잘『마ー크』하는 朝鮮守備陣을 突破하지못한채 끝내엿다 朝鮮은 兩인너ー를 비롯하야 RW·OF·OH等 全員이 均衡된實力을 가젓는데 關東側은 RF·OH·RH가 不振하엿다

北支皇軍慰問

平壤基督親睦會

평양기독교친목회에서는 상임간사 오문환(吳文煥)씨등이 중심이되여 조선내 기독교도로써 북지황군위문단을 조직하고 그동안 이에대한 준비를 급히하고잇섯는데 이게회에 한번세상에 알려지자 참가희망자가 속출하게되여 그인선을 신중히한결과 목사일곱, 장로한명, 집사두명, 신도한명등 열두명을 결정하엿다 이리하야 이십육일드디여 위문의길을 떠나게되엿는데 오는일월일일에 도라올예정이다. 그리고 일행이 가지고가는위문품가튼것도 될수잇는대로형식에 치우치지안코 기독교계통의소학교 유치원등의 아동작품 흑은 각교회교도의 수제품을 수집하야 전조선기독교도의 적성을일선장사에게전하기로되엿다

列車食堂에 正初떡국

철도국에서는 금년에도 작년에 따라 정월 사흘동안 각열차식당에서 여객에게 화식(和食)식에 떡국을 대접하기로되엿다 그리고 특히 금년부터는 섯달그믐날에 각식당에서 여객에게 대하야 일제히 해넘기는『소바』를 대접하기로 되엿다한다

電車에서盜難

전차안에서 귀금속 가질ㅡ이십오일오후 한시오십분경 시내대화정(大和町)이정목 일백이십삼번지 초전(田中X)이란사람이경성역에서 동래정(東萊町)방면으로 가는 전차를타고가는사이에 금시계줄를 일허버리고 본정서에게출하엿다

公定價無視한 不正柴炭商摘發

시내노림정(老林町)일백팔십칠번지 시탄상 최(崔)는 지난십사일 김포군양서면마해리(金浦郡陽西面馬海里)삼백팔십오번지 이필순(李弼純)으로부터 기도산 장작을 한평에 이원구십가마니에 일원팔십전씩 주고 사온것을 공정가격은 일원칠십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무시하고 일원구십전씩받고 팔엇던것이 경찰에 탐지되여 이십삼일『조선신탄판매가격취체규측위반』이란 죄명으로 영등포서(永登浦署)에 적발되엿다

朝鮮辯護士試驗制

昭和廿年까지存續延期嘆願

지난소화십일년사월에 제령(制令)제사호로써 발포실시된 조선변호사령에의하면 종전에규정된 조선변호사시험제도가 오는 소화십오년말까지 존속하고 그이후는 조선변호사시험제도가 철폐되기로되여잇다 그런데 이와가티조선변호사시험제도가 철폐되는때에는 그동안 가진고초를 무릅쓰고 수험준비를해오던 일반수험생들은 그전도의희망이 전연끈허지고만다고하야 이십육일오전 열한시경에 수험생 김연창(金演昌)등 십여명이 총독부법무국을 방문하고 다음과가튼 다섯가지이유를들어 조선변호사시험제도연기에대한 원서를 제출하엿다

一、소화십오년말까지 존속하게된조선변호사 시험제도를 소화이십년까지 연장하여줄것

二、소화십오년도에 시험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소화이십년까지 시험을 치르게하여줄것

三、조선변호사시험기일을 내지의사법과 시험시행기일과 동일기일로 해줄것

四、유럽전서를 시험때에 사용하도록하여줄것

五、예비시험합격자는 이후이를 면제하여주는 규정을 설정하여줄것

學生氷聯主催의 氷上大會規定

朝鮮學生氷上競技聯盟에서는 [illegible] 決定하엿다

【高專大會】▲아이스·하키ㅡ一月十六日로부터十九日까지 午後二時와午後七時까지(城大스케ー트링크) A組는大學、京商、世醫專、高工、普成 B組는延專、醫專、京商 (A·B組에나누어 리ー그戰을 行하야 兩組의決勝戰을行함) ▲스피ー드ㅡ一月二十一日午後一時(京城綜合링크) 競技種目ㅡ五百米(세파렛)千五百米(오픈)五千米(오픈)二千米릴레ー(세파렛) 出場人員은 一種目에 三人으로하야 總點數에依함 ▲피겨ーㅡ一月二十一日午後一時(城大스케ー트링크)一級二名以

【中等學校大會】▲아이스·하키ㅡ一月十四日 午後二時 一月十五日午前十時…(城大스케ー트링크) 競技는토ー나멘트式에依하야行함 ▲스피ー드ㅡ一月二十二日午前九時(京城綜合링크) 競技種目…五百米(세파렛)千五百米(오픈)五千米(오픈)二千米릴레ー(세파렛) 出場人員은 三名以內로하야 總點數에依함 ▲피겨ーㅡ一月二十一日(城大스케ー트링크)

申込期日은 아이스·하키ーㅡ一月八日까지 스피ー드와피겨ー는 一月十五日까지 京城帝大學生課內 矢野武雄氏에게

神宮하키對陣決定

第十四回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 아이스·하키ー對陣은 다음과가티 決定發表되엿다

▲一月七日(第一回戰)

A、京城帝大對京城師範

B、大學豫科對京城商業

C、龍山中學對京城醫專

D、世醫專對城大

(以上午後一時부터開始)

▲八日(第一回戰)

E、京城高工對醫科聯

F、普成專門對延友俱

(以上午前十一時)

G、延禧專門對京商俱

(以上午後一時半)

▲九日(第二回戰)

H、A의勝者對B의勝者

I、C의勝者對D의勝者

(以上午後四時半)

▲十日(第一回戰)

J、E의勝者對F의勝者

K、醇和俱對Q의勝者

(以上午後四時半)

▲十一日(準決勝)

L、H의勝者對I의勝者

M、J의勝者對K의勝者

(以上午後四時半)

▲十二日=L勝者對M勝者와의決勝(午後四時半)

年末年始의 放送프로編成

연말연시의『라디오』는 연말연시의 휴가때에임하야 그효과를내려고 활약하는데 방송협회에서도 연말연시의특수『프로』를 편성하야 일반청취자에보답코저 최선을 다하고잇는데그중『DK』의 특수『프로』를보면다음과갓다

▲二十九日 오후여덜시부터『반도소화십삼년의회고』라는제목으로 제일방송곡영(幅氷)『아나운서ー』

▲三十日 오후여덜시오십분부터『거리의루프타ー주』(第一放送)이동방송모양

▲三十一日 오후여덜시오십분부터『제야(除夜)의종』

▲元旦 오전한시 초예실황(初詣實況)조선신궁으로부터 중계한다(第一放送)

▲一日 오전여덜시부터『남상(?)강연』이 판서로부터 중계된다(第一放送)

▲同日 오전아홉시부터 세조제실황(歲朝祭實況)조선신궁으로부터(第一放送)

▲四日 오후한시부터『상병장사위문의오후』용산육군병원으로부터 중계한다

종딱

천지일월을못보던 장님이 과학의힘으로 눈을떳다

○

요담번에는 귀머거리와 벙어리차례

○

개천지 룡만고에 희귀한이런일에도 원수놈의돈문제

○

이들의광명을 위하야 고심하든 조야박사(早野博士)와 전중원장(田中院長)의사회에 호소하는말에 누군들 맘이움직이지 안흐랴?

○

경기도에서 결레택시를 일소한다고야단

○

인저는 제갈엇치 택시를탈게송할모양

咸興孤兒院設立

李炳式、五萬圓을惠擲

사재오만원을 던저함흥(咸興)천도교능 유아원에다고아원을 세우고집업는아이들을 길오겟다는특지가가잇다 함흥에서덕흥(德興)과수원을경영하는 이병식(李炳式)씨는 함흥에다가 고아원을 세우기위하야 사재오만원을 내여노코 고아원사업의시찰을 하기위하야 순안(順安)의명승리 김정회(金正會)씨와함께 이십륙일에입경 경성부근의 여러고아원을시찰하엿다 원사는 기지삼천백평으로 위고남으로도지는 고아들의실습지에수용할터인데 원사는 명년 오월경에 낙성될터이므로 그때부터 곳개원하야 고아를수용할터이라한다

평권軍記錄會

赤城山頂에서 合宿을하고 잇던 평권軍은 지난十一月二十一日부터 二旬餘에 亘하야 良好한 天候의 惠澤을 맛게되여 그동안 이番동안만 風雪로 練習을 中止할뿐으로 例年에 比하야본다면 이번『씨ー즌』처럼 도지게한때는업섯다한다 練習記錄會의 成績이 學生記錄을 突破한것으로 보아도 全日本氷上制覇의 自信이滿滿함을 엿볼수잇다

▲五百米=1崔龍洙四四秒七 2張日弘四五秒六 4李仁源四六秒(學生最高記錄四五秒 石原省三(早大))

▲千五百米=1李仁源二分二七秒一 2張祐植二分二九秒四 2崔龍洙二分三〇秒八 4金永俊二分三〇秒九 5尹寶植二分三二秒四 6鄭東彥二分三五秒(學生最高記錄二分二七秒一 金正漢(明大))

▲五千米=1尹寶植八分五九秒九 2泉山九分〇五秒九 3張祐植九分一〇秒 4李仁源九分一三秒二 5朴性用九分一五秒(學生最高記錄九分一一秒五 張祐植(明大))

▲一萬米=1張祐植一八分三一秒四(學生最高記錄一八分四六秒三 金正(明大))

普專蹴球와 培材卓球今明發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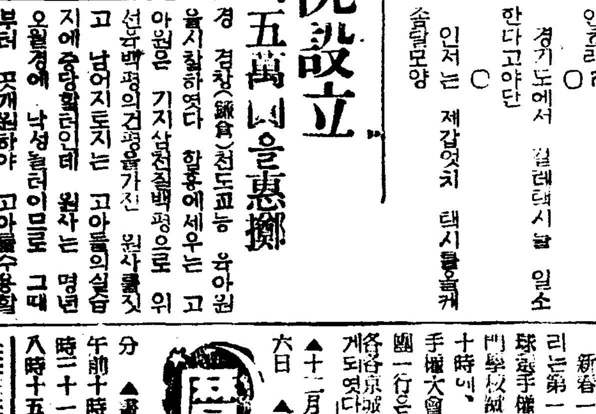
新春一月初旬부터 東京에서열리는第一回全日本高等專門學校蹴球選手權大會에 出場할 普成專門學校蹴球團은 今二十七日午前十時에, 第九回東洋旗爭奪卓球選手權大會에 出場할 培材中學卓球團一行은 明二十八日午後二時에 各各京城驛發列車로 壯途에오르게되엿다

曆

▲十二月二十七日(火曜)十一月六日 ▲干支 癸巳 ▲日出午前七時四十七分 ▲日南中午後零時二十四分 ▲日入 午後五時二十二分 ▲滿潮 午前九時二十五分 ▲月出午前十時四十五分 ▲滿潮(仁川)午前時二十一分 ▲月入午後十時十五分 午後八時二十五分

今日天氣 晴一時曇

治淋特效藥 治淋特效藥 治淋特效藥



六〇六號以來의世界的發見!

淋疾治療의化學療法完成！完治者續出！

治淋의効成分G—U—サイド 創製에成功한것은 確實히 現代醫學의 偉大한 勝利를 意味할뿐만아니라 黴毒에對한 サルバルサン（六〇六號）以來의 發見이라하야 全世界治淋界에 一大衝動을 惹起하엿습니다.

G—U—サイド의 特效因子는 從來의 다른治淋藥과는 根本的으로 相異하야 服用하면 體內에 化學的作用을이르키여 淋菌에對한 殺滅力의 强烈無比한것은 일즉 全世界醫科大學泌尿科教授等의 實地試驗에依하야 十中八九(85%—90%)의 完治率을 報告한바잇섯고 그後 東洋에서도 試驗發賣한지 一年未滿에 그驚異的特效는 實證되여 今日에잇서서는 完治者屢萬을 헤이게되엿습니다。

本劑의突擊療法

外國에서 斯界專門家二十四氏의 最近報告를綜合하면 服用者總數一五七四名中 全治者一三三八人 即85% 殘餘二三六人中 一五七人即10%는 全治되지안헛고 그남어지八〇名即5%는 結果不明으로되엿습니다。 그런데最近本邦에서 새로히發見된 本劑의突擊療法에 依하면 全患者의95%까지를 完全히治癒할수잇다는것이 確認되엿습니다。

新治淋特效成分発見

特히 本劑의特色은 注射나洗滌等을할것업시 一日五一六錠식 二一三日內服만으로 止膿止痛이迅速히되여 前과가튼 完全한健康體로 恢復된다는것은 各患者의實驗談이올시다。

効果 本位

G-U-サイド
ヂユ

急性 慢性을不問하고 淋疾로苦痛하는분！ 苦痛갖기前에 먼저本劑를 一次試用하야 根本的으로治療하기를바랍니다

일즉이 本劑를服用하야 完治된患者의 實驗談集은 淋菌撲滅의 參考資料가될가하고 數十例를 엮어 各有名藥房에配置하엿사오니 參考하시고 必要하시거든 請求하시기를 바라나이다

(全國有名藥房販賣)

中部版

學院兒童二千餘名 無料理髮로奉仕

【仁川】인천부 경정(京町)에잇는 모단이발관주인 김재홍(金在洪)씨는 인천부내아동을 위하야 매년 연말이면 무료로이발을 하야주엇다는바 금년도 연말을당하야 부내에 흐터저잇는 각학원아동 이천여명에게 무료이발을 봉사하고 또동히 장영(長榮)소학교와 송현(松峴)소학교에도 무료권을 배부하야 돈이업서서 이발을못하는 아동들에게 배부하야달라고 부탁을하야 지난이십칠일 양일간은 일반손님은 밧지를안코 아동들만 이발을하리라는데 일반은 김씨의 아름다운 특지에 칭송이 자자하다

農村小學生의悲哀

實習때문에學力不足 上級學校入學不能

長湍郡某小學校에서는一年生도使役

學父兄間에서學校當局을非難

근로정신을 기르기위하야 소학교에도 도회지나 농촌이나 그지방의정세에따라서 직업과를두어서 가르치고 실습을 시키고잇는데 농촌학교에서는 대개 채소재배와 양계 혹은 양돈을하야 생도들로하여금 경영하여가게하고잇다 그런데 지방을따라서는 어린아동들에게 너무과도한 실습을 시키기때문에 소학교 육년을졸업하고서도 경성이나 또는 지방의 중등학교 입학되는일이 거의업게되여 학부형들의불평이 도처에서 이러나고 잇섯는데 경기도장단군(長湍郡)내 모소학교에서는 여덜살먹는 일년생까지 삽을쥐고 농업실습을시키고 십리 또는 십오리나되는 먼동리에서 통학하는 생도들이 양계양돈의 일을하게되므로 말미아마 밤늦게집으로 도라가게되는 형편이여서 부형들의걱정도 심하거니와 집에도라가서도 피곤해서 배운학과를 복습도할수업시 그만 자리에 쓰러저 자게된다한다 이가티 공부해서는 아모리 장래에 상급학교에 올라가고시퍼하드라도 도회지소학교 아동들에게 견주어 학력이 도저히 미치지못하게 되는것이라한다 그래서 다소불평을 품은 부형들은 학교당국책임자에게 실습을 좀 완화시켜달라고 요망하여도 그학교당국자는 농가의자제는 상급학교에갈 필요가업다하고 소학교를졸업한 뒤에는 농사를짓는것이 떳떳한일이라고 대답하야 사랑하는 자제의교육에 열심을내고잇는 부형들에게 락담을 시키는일까지 잇서서 어떠케해서든지 감독당국으로부터 이실습시간과중의 페해를 고처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잇는터이라한다

實習過重은禁物

詳細히調査後에善處

◇……京畿道學務課某氏談

이에대하야 경기도학무과당국자는 다음과가티 말한다

어느지방소학교에든지 직업과를두어서 실습을시키고잇지마는 그지간은 적당히하도록한것이고 결코 과도히 무리하게 하라는것은 아닌것이다 장단군내 모소학교에서 학부형들의 불평을살정도까지 생도들에게 실습을 시키고잇다는 사실은 이제처음듯는 일이나 만약 그러한일이 잇다면 그것은 학교당국자가 심한일이다 잘사정을 조사하여보겟다

永登浦술집에서 酒朋을刺傷

醉中言爭끄테이慘事

【永登浦】지난이십오일 오후여섯시경에 영등포정 오백삼십구번지 김영철(金永喆)(三○)은 모신문지국원이동정오백십이번지 임상옥(?)술집에서 술을마시다가 마침그곳에서 술먹고잇든 김현규(金現圭)와 말다툼하다가 김영철이가 흉기주머니칼로 김현규의 외인편에게 미룰찔러 서기교와 세번지나 되도록네군데에 상처를 입히엇다 피해자김현규는 곳영등포 소전병원(小田病院)에 입원 시켜서 응급치료를하는중이다 가해자 김영철은 영등포서에 검거되여 방금 엄중한 취조를밧는 중이다 박두한년말에 술집에서 이와가티 살인사건이발생함에 대하야 인접 도민들 불안하다

江華의冬期交通 今年은異狀업다

다만西島線은依然憂慮

【江華】강화도는 연래 유빙(流氷)으로 팔만도민의 두통을 주고잇서 매년 십이월로부터 명년이월까지 사이에는 적어도 일주일내외나 교통이 두절되여 육지와는 별세계가 되여잇섯스나 금년만은 아직까지 일절의 류빙도업스며 아프로도 영하십도내외의 일기가계속된다면 금년만은 천혜로 별문제가업스리라고한다 그러나 강화본도를 중심으로 제도서인 서도선(西島線)만은 의연 아프로 우려가된다고 한다

八人組賭博團打盡

【竹山】경기도 안성군 죽산경찰관주재소(安城郡竹山警察官駐在所)에서는 이십일 소관 당국리 창한복외 모요리음식점(某料理飲食店)을 수사하야 도박단팔명을 검거하야취조한바 전과자도 수명이고 도박상습으로 종사하는자들인바 엄중한 취조를 계속하는중이라한다

遞信局御用納式

체신국에서는 오는이십팔일오후부터 체신사업관계에서 어용납식(御用納式)을할일 신년식을 어용시식(御用始式)을한다

連發하는熱誠

泉峴小校生美行

경기도파주군(坡州郡) 천현(泉峴)공립소학교 생도들은 지나사변발생이래 수차나 애국헌금을 하야 육군대신으로부터 두번이나 감사장을 바덧는데 수일전에 또 육십칠명이 콩, 팟, 밤 대추등을 주어서 판돈십원을 황군위문금으로 용산사단사령부에 바첫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자못감격하고잇다

官公署員의禁酒로 飲食店에는大打擊

【蘇萊】소래에서는 현하전시체제에 소화십사년을 맞게되므로 관공리들은 금반정신강조주간의 소비절약을 일층더강조키위하야 금주를실시하엿다 보너스경기를잇고 음식점에서는 손꼽아 기다리든 시절도 수포로도라가 울고잇는 형편으로서 술집게는 타격이라고한다

壯年自殺

【竹山】경기도안성군 일죽면 죽림리(安城郡一竹面竹林里)에 거주하는 강성존(姜性存)(四○)은 오늘오전팔시경 동리서거리가산마장가량되는 산에가서 목을매여 자살하얏는데 동리사람들이 발견하고 즉시 당국에고발하야 죽산의원의사 최창선(崔昌善)씨가 검시한바 계획적자살로 판명되엿는데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라한다

名刺交換會開催

【蘇萊】현재전시체제에 장차소화십사년을 마지하며 황국의번영을 축복하기위하야 각자의회례폐지를 목표로 오는일월일일 소래소학교에서 배하식이 끗난후 명자교환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다한다

素砂某農場의橫暴

無理한還土請求

理由는벼를안말렷다고

【富川】경인선소사의 영리사업가로 제일인자요 부호인 최모(崔某)는 그가 경영하는 농장의소작인측에 대하야 각금너무도 가혹한처분을하야서 비난이적지안튼니 지난십이월이십일에는 또다시다수한 소작인에게토지반환을요구하야 왓다 그 이유의 대부분이 가을에 벼를 잘 말리지 못하고 비를마첫다는데 잇다한다

이 일에 대하야 소작인의한사람인 김정식(金政植)(二○)이란 사람은 말한다

『내가 하는 땅은 그집거테잇는 염마지기 입니다 식구는 일곱 식구에 땅이라고는 겨우 염마지기 되지안는것을 하여서 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올에 벼말릴적에그만 비가와서 그까닭으로 벼를 잘못 말렷다고 땅을 내노랍니다 그래서 하도억울 하기에 학교 선생님께도가서 엿줍고 하엿더니 학교선생님도 지주에게가서서 여러가지로 빌어 바치시고 또동내 구장 진흥회장 께서도 여러가지로 달래 보섯읍니다 그러나 지주는 영 드러주지안코 그것을 내노코 정그러면 어듸어되것이나 하라고 도저히 할수 업는 땅을 지정합니다 할수 업는 사람은그것이라도 하지요 그런데 나의 한사람 사정을말하면 그땅은 원래 우리땅인데 그만빗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팔르시고 도라가섯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내가 몃번다녀지요 그러나 영 듯지안는구면요 그것이 모다 그사람이부리는 정(鄭)서방의 농간인가바요 정서방이 할만한논은모다빼앗어 주고 다른사람중에 만만한 절믄아해 둘의것만빼앗습니다 그래서 오늘소작조정청구를 하얏습니다』운운

約四百件은鐵物

窃盜四百五十件에

本町署集計로본奇現象

시국의 영향은 범죄에서부터—본정경찰서 사법계통계에의하면 금년일월부터 십이월말일까지 그경찰서에서 검거송국한 절도건수가 사백오십사건인데 그중 사백삼건은 철물절도다 그리고 인원으로는 일천이백여명에달하는데 재래에는 절도중에도 철물보다 의복등속이 만헛는것이 금년에는 철기근으로 쇠갑시 몹시 올릿스므로 모두 쇠를 도적질하야 고물취급자의피리적에서부터 하수도뚜껑 전선 귀금속은 말할나위도업고 심한것은 공중전화통까지 떼여간것이잇서서 사변하의 범죄대상은 철물에 집중된것을 여실히나타내고잇다

年末警戒網에 걸려든犯罪者

【金浦】김포경찰서에서는 지난십오일부터 연말연시의 특별경계를 시작하엿든바 벌서경계망에걸려든도박이 유건에 인원이 이십삼명 절도범이 일매음이 일건이라는데 그중에도 대부분은 도박범이라한다 길정서장(吉井署長)은 왕방기자에게 아래와가튼말을하엿다

농촌진흥에 떠들고잇는이때에 이와가튼 다량의 도박군이 검거됨은 크게유감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요지음 각농촌에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가지고 도박이 성행한다는 소문도잇고 각요리점 음식점에서는 풍기에문란한 추문이잇스므로 이번특별경계중에 도박당은 철저히소탕시키는동시에 엄중처벌할 방침이며 각요리점 음식점에서주행하는것도 절대로용서업시엄벌할 방침이라한다

江華가마니生產激增

벌써三百萬枚突破

明年度에는四百萬枚를目標로邁進

愛國貯金만도二萬圓의巨額

【江華】강화군내의 소화십삼년도『가마니』생산고는 이백삼십만매이엿섯는바 시국의 반영으로 근로작업과 또는생산보국에 매진하야 이해가 다저믈어가기전에벌서 삼백만매를 돌파하얏스며 이에서화산된 금액만도사십만원을 돌파하얏스나 이에서 어든갑사로 지난삼월부터 시작된 애국저금액만도 이만원을돌파하야 과연 생산보국의 기개를노피올리엿다 그런데 명년도에는 적어도 사백만매를 돌파하리라한다 그리고 지난이십사일 선원면연리(仙源面煙里)에서만 출회된것이 이만여매를 돌파하야 성황이엿섯다 한다

(사진은 가마니의販賣光景)

가마니密輸船 江華서또發見

【通津】강화군불은면오두리(佛恩面鰲頭里) 압바다에서『가마니』밀수선이 드러와서 밀수주범을 근고압래하엿다고 본보에 보도된바어니와 불과십일이내에 또가마니밀수선을 출장나갓던 불은면서기김규순(金奎順)씨가 덕성리(德城里)압바다에실고나가는것을 발견하고 압바다까지 쪼처가서 붓잡어 오두리압바다에 상륙시켜 조사하여보니 밀수주범 신현리(新峴里)사는홍종서(洪鍾西)가 덕성리사는김경렬(金京烈)배로 밀수하려다가붓잡혓다 그중에는 가마니수천여매와 무검사인 경조이십일가마니가 실리엿다는바 즉시소관은 수경찰관주재소에 압리여 엄중한처벌을하리라고하여 이가티한두번이아니고 번번히 밀수업자가 속출하여 강화군농회에서는 그방지대책을 강구중이라고한다

開城商校에도 御眞影傳達式

개성공립상업학교(開城商業)에서는 어진영봉안고(御眞影奉安庫)가 준공되여 이십칠일오전열시십분경기도청 지사실에서 어진영전달식이 이엇다

江華郡에火災

【通津】강화군양도면(良道面)건평리 장일섭(張日燮)(四○)씨집에서지난 이십이일 오후다섯시경에불이일어나서 일대소동을 이르키엿는데 소방대도업는곳이라 이웃사람들의 노력으로 겨우그날밤열두시경에야 일가를 전소하고 진화식키엿는데 원인은장씨의손자다섯살넘은 어린아이가석냥을가지고 불작난을하다가 그와가티 되엿다는데 손해는약이백원가량이라고하며 일반 어린이들은 각가정에서는 주의하여주기를바란다고한다

江華敎育界恩人

崔尙鉉氏追悼會

【江華】강화교육계의은인 고류연최상현(故柳然崔尙鉉)씨의제오주년 추도회는 기보한바와가티 지난이십일 오후두시부터 합일학교 강당에서 개최하얏는바 박제승(朴齊昇)씨외 오씨의 추도사와 생도들의 추도가며 오십여종의 추도문추도전을 피로하야 근일 보기 드믄회합으로 경건하고 처모의정으로 회장은 다시금 옛생각에 잠긴가운데 동세시반에 무사히 맛치엿다고한다

新町會巡廳記 (十四)

孔德町西部町會

住宅地로有望한곳 將來의發展을約束

水運의便利로各地에서移住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변하고 기와집이 이층양옥으로—어제일이면 해전일만가치 나날이 변천해가고 잇는 장안에서 으복자식 돌리뱅이맛듯 아직도 옛태를 못벗고 쇠잔등가치 시멘간산빗탈에다 한울타리매 달아논듯 초가집이느러슨 동리가 잇스니 여기가바루 공덕정서부정(孔德町西部町)이다 이정회는 공덕정이 사구로나누어잇던것을 이번에 일구와 이구를 합병한 동리다 『용산상개공덕지하에…』노래구절에도 저해온바와가치 공덕리가 노동강변에서 오랜옛부터 경성의 수로판문인 마포(麻浦)항의 병참지대(兵站地帶)로 유명하던곳이다

○…○

지리적으로 보아 공장지대의 대안을 가진 마포를 압페두고 안으로는 발전도상에잇는 서부경성이 무릎밋까지 빼처잇서 지금에잇서도 이곳이 머지안허 불원만치 변천되리라고는 누구나 생각하게되나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잇는드시 때오기만 바라는듯한 현재의정을 볼때는 일종의애수를 느끼게한다 어느때나 발전되는가? 그야 대자본가들의 진출만보든날에는 상전이벽해가되듯 삼층사층의 양옥이 즐비하게느러스게도 되더이지만 그러케된 발전의뒤를 생각하면 이들 주민의 갈길이 어디인가가 문제이다 여기는 지금 곤패라고 걸어부친집이 일천삼사백호가넘는다 한가구에 네명식만 산다고해도 오천여넘는 인구가 살고잇스나 대부분이 어려운살림이라 거의전부가 근로생활을 하다시피 공장이나 회사를 배경으로 생계를영위하고잇다

○…○

이동리에집이들어닥고 비로소동리라고이름지기는 지금으로부터 백여년전일이다 물론지금가티철도도업슬때다 그때시절에 수로를 이용하야서울을오르나리든이들이 마포에서 서울로드러오다가 러장기편한맛에 이곳에 터를잡고 집을지엿다한다 그러므로 이동리에사는사람들의 본고향을 살펴보면 수로로다니기편하든 연안(延安)해주(海州)방면을비롯하야 김포(金浦)통진(通津)파주(坡州)사람들이만히살고잇다 누룩 소주잘만드는곳으로 유명하엿다 이것은지방으로부터 이주해온이들이 갑자기 살어갈길을 구하느라고 기게 업슬때의 손재조로벌어먹던 미천이엿섯다

○…○

이정회의 역원을보면 총대는 오래동안 편리생활을한 박용구(朴容九)씨고 부총대는 조기승(趙基昇)씨 권린수(權麟洙)씨이다 총대 박용구씨를그대로찾으니 다음과가치말한다

『정회로서 할일이야 한두가지가 아니겟지요만 생활이넉넉지못한데다가 매사에 이중생활을 하고잇스므로 무엇보다 위선 생활개선부터 실시하기로하엿습니다 첫째로 이중과세폐지 둘째로 색의를 입을것 셋째로 시간을 지킬것 이것세가지를 새해부터 철저히 여행하기로 하엿습니다 그리고 정회비인데 다른동리와 달라 빈곤이만케로 단십전이라도못내게겟다는 이기만호모양이나 되도록은 정민된의무를지키게하기위하야 최하를 삼전으로 정하고 어찌할수업는 이외에는 부담을시킬작정입니다』운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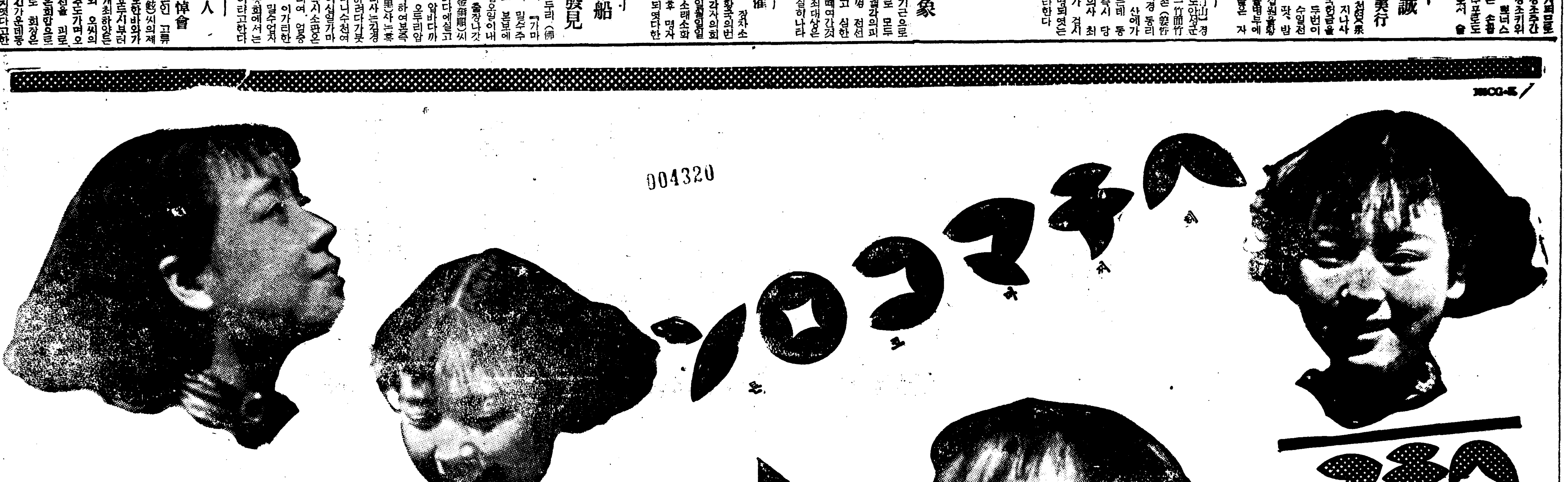
(사진은 총대박용구씨)

(完)

共存共榮을目標로 販賣組合을創立

仁川朝鮮酒販賣人結束

【仁川】현하시국하에 모든물자는통제와 절약을 부르짓는이때에 인천에 산재하야잇는 조선인주류판매업자는 지난이십일 인천상업(仁川商業)주식회사누상에서 판매조합을 조직하고 각양조장의 판매업자에대한 그동안불평과판매추인을 개선하자는의미에서 공존공영을목적하고 인천조선주판매조합을 결성하얏다는데 출자는일시불로 한주(株)에대하야 이십원식이라하며 조합장에는 김동희(金東熹)씨가 당선되고 이사에는 강병주(姜丙柱)씨가되엿다한다 그리고 그외역원수삼인이 각임명되엿다



十二月二十八日까지 每日晝夜二回 晝一時夜七時 開映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大毎ニュース
◇全勝キネマ社作品 現代劇 軍國の女神
監督 天津行郎 主演 大河內
◇合同商事映畫配給提供 モンテイ大陸橫斷 モテイバンクス 主演
◇全朝合同키네마社作品 新版 세 동 무 (二卷)
監督 金永燐
主演 …
◇大週… 朝鮮映畫 …
特別豫告 …
京城新堂町 電話(本局)五六七七番 新富座

廿四日より三日間
◇廿世紀フォックス社 特作 奴隷船
ウオレス・ビアリ ワーナー・バクスター 主演
◇メトロ社大作 W・S・ヴアンダイク 監督 ローズ・マリー
ジヤネツト・マクドナルド ネルソン・エデイ 主演
◇東寶特作 新柳櫻 霧立のぼる 主演
週報 京日 ニュース パ社
大・平壤・劇

十二月廿六日 晝間早日三日間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每日二回 晝夜一回 …
東寶映畫社超特作 山本嘉次郎 …吉屋信子原作 良人の貞操 前後篇大會
入江たか子 高田稔 …
百發白中の男
千萬長者の前後篇大會、どんぐり…
第一劇場 光 一七五五

松竹映畫
結婚眞劍勝負
孝子の印籠
吉田奈良丸
女のいのち
各社ニュース
マネキ

◇七八歲에도戀愛하나 一幕
◇路草 二幕
◇大天勝一座來演
東洋劇場 電話③二一五四 三六四○(事務室專用)

連載小說

薄命 (171)

韓龍雲 作
鄭玄雄 畫

이혼 (一六)

순영이가 대철이 설명을 드를때 아예 금광에대한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서 두수없이 그런 다른 꿈속에 어른 대철이로서는 사세가 그렇다도 하얏스마는 자기로서는 번 말이라도 대철이와 이혼한다고 하기가 실코 또는 나중일이 어찌될는지 모르는 일이어서 잠시의 수단으로라도 이혼을 승락하기가 실혓다

『그러면 단지 돈을 둘러쓰기 위하야 그러신단 말슴이지오?』

순영이는 편란한 기색으로 말한다

『물론이지 그러치만 안하면 웨 사랑하는 안해요 은인이라면 은인인 순영이게 대하야 중난한 이혼이니 뭐니 하는 말을 내리가 잇나 그러치안허? 생각을 해보라구』

대철이는 순영이를 힐끗 쳐다보니 다시 손을 잡으면서

『사람의 서로 마음을 아라주어야지 낼들 연복해야 그런 생각을 내며 그런말을 하나 이게 다 우리가 나중에 자식을 다리고 잘살자는 계책이어든 나도 순영이게 이런 말을 하는것이 빼가 아프지만 어찌는수가 업서서 이런 말을 하는게데 우리안해가 이런사정을 몰라주면 어떠케하나 만일 우리 안해까지내속을 몰라주면 나는 자살하는수밧게 다른도리가 업거던 하니까 순영이도 마음대로 하라구 나도 강박하는 열은 아니니까 나도 본의가 아닌일을 하면서 웨 순영이를 강박하리가 엿나』

대철이는 순영이 손을 노흐면서 한숨을 쉬다 순영이는 어떠케 말을해야 조흘는지 갈피를 잡을수가 업섯다 그리하야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러케 하지오』

순영이는 순란한 눈으로 대철이를 본다

『옹 어떠케?』

대철이는 자기의 요구를 드러주는가 하야서 반가운게말한다

『당신 말슴과가티 한다면 그동안은 가치 잇슬수는 업지오?』

『아주 가치 잇슬수는 업지만 그래도 와다갓다 하게되지 아주 못만나게 될수야 잇나』

『그러더래도 가치 살림을 할수는 업는것이 아니야요?』

『그러치 아주 살림을하고 잇슬수는 업게되지 하지만 그려지안터래도 금광에가잇게되니까 가치 살림이야 하게되나 그새인들 내가 얼마나 가치잇서하니까 그러나 저러나 얼마동안 가치 살림하고 잇지못하기는 마찬가지진』

『하기야 그러치만 그래도 달지 안어요?』

『다름게 무엇잇나 가치 못잇기는 마찬가지진』

『그러니까 아무런 곰팡일이꼿나기 전에는 항상 가치 잇슬수는 업지요?』

『그야 그러치』

『그러니까 말이야요 기왕에 그럴것 가트면 다른도리가 잇슬것 갓군이요』

『옹 무슨 도리요 말을 해보우』

『그일이 될른지 안될른지는 모르지만 내생각에는 될것도갓군이요』

『글세 무슨일이란 말이야?』

『내가 그전에 하던 노릇을또 해보지요』

『그전에 하던 노릇이라니?』

『내몸을 판단 말슴이야요』

『몸을 판다는게 무슨 소리야』

『전에 몸이 팔녀가서 색주가 노릇을 아해서요 하니까 어차피 얼마동안 당신하고 가치살지 못할바에는 차라리 내몸을 파라서 얼마를 밧던지 그돈으로 금광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살림을 하면 마찬 가지가 아니야요 하니까 생소한데는 할수가 업지마는 인천가서 그전에잇던집에 사정을하면 될것 갓군이요 하니까 그러케나 하시지오』

하 순영이는 눈물이 그렁거린다

오리지낼 씨나리오 懸賞募集

朝鮮映畵에잇서서 이미 참다운 오리지낼 씨나리오를要求한지 오래이엇고 따라서 참다운 씨나리오 라이터ー가 나와야한다 이번 映畵祭를機會로 널니 이方面의 새로운 藝術家를 求하는바이다 當選作品은 반드시 映畵化하기로되어잇서서 在來의 映畵製作의 一大缺陷인 씨나리오難을 開拓하는 새길을차즈라한다 眞實로映畵藝術을 사랑하고 더욱 朝鮮映畵의 將來를생각하는이는 絶好의 이機會에 爭先應募하기를바란다

▲期限 昭和十四年一月末日까지
▲枚數 四十枚(四百字)以上百枚以內
▲賞金 佳作一篇 百圓 佳作二篇 五十圓
▲受信 朝鮮日報社學藝部演藝係로보내시되 피봉에『씨나리오在中』이라쓸일
▲注意 반드시 오리지낼 씨나리오에限함 同時에 읽을수잇슬 程度의文脈의 連絡과 說明을 必要로함

(版權은本社所有로함)

朝鮮日報社學藝部

今週映畵

本館廿一周年記念 東西名畵週間開催

시내단성사(團成社)에서는 본관(本館)이십일주년기념으로 이십오일부터 삼일간 주야상회로 동서명화(東西名畵)를 상영하기로되엿는데 입장자전부에는 기념품을 진정한다고한다

一、『윌리·포ー스트』와『파올라·베쎄리』주연의『속사기는나무그늘』
二、안석영감독으로 김소영(金素英) 조석원(曹錫元)주연의 심청(沈淸)
三、죽본(竹本)쟈즈스윙밴드로、비타ー、콜럼비아、일축(日蓄)때상들이출연

浪漫座의第二回公演 "地熱" "太陽의아들" 二十七、八、九三日間 於太平通府民館講堂

연극호출이후 신진연극동인으로 조직된 낭만좌(浪漫座)는 제일회 공연으로 떠스트에프스키작『죄와벌』을 상연하야 그역량을 시험하엿거니와 그후 이박년의 저예을 망라하야 다음공연을 준비하야 오던중 廿七、八、九삼일간 야간 부민관(府民館)에서 공연하게되엇다한다

연극작가 삼호십랑(三好十郞)작 전사막과 진선풍(眞船風)작이랑 박향민(朴鄕民)번안 지열(地熱) 내(李光來)번안『太陽의아들』전일막이라고한다 일반대중에게센세슘을이르킨 빼스트·렌의하나로 일반의흥미와 기대가크다한다 그리고 견지정(堅志町)일백십번지에 사무소를둔동극단은 신극의진연희를앞두고 전원은 주야겸행의 맹연습을 하고잇는터이라한다

出演者ー李化三、太乙民、文鏞、崔鉉鶴、李一秀、柳信烈、鄭龍瑞、趙鐵、朴貞姬、朴鳳來、李興鐘、鄭鎭宮、閔竝楨、尹星敬、宋在瑛、金斤乙、朴商爀、池季順、金錬玉、崔景淑、宋乘珠、成惠淑

演出ー李光來(地熱) 朴鄕民(太陽의아들)
助演出 朴鳳來
裝置 姜聖範
監督 宋在善
照明ー李柄南 崔漼
效果ー柳壽永
프롬터ー鄭鎭業 鄭龍瑞

雜遝한送迎을앞두고 映畵의豪華陣營 그러나不振하는洋畵

년말년시를당하야 시내상설관은 새로운영화진영을 정비하야 장차 살도할팬을 기달리고잇는터이다 그러나대체로양화(洋畵)수입의제한을바든영화진은 어딘지 공막한느낌을 가지게하야다 르해가트면 히트판의 양화를내걸고 손님을부를터이로되 때는 비상시 여기에도 시국색은농후히 반영되여잇는터이다 인제 각상설관의 프로를 일별하기로하자

明治座 메트로의"大都會" 그外는全部가 松竹大船作品

★大都會ー이작품은 "프랑크·보ー제기"의 히트작품으로 "歷史는밤에맹그러진다" "眞珠의도리" 등을 맹그러낸 "보ー제기"가 다시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大地』에서 아카데미상을 바든 "루이즈·레ー너"와 "바다는 나의아들" "秦淮"등에서 명연기를뵈여준 "스펜서·트레시"의명콤비로 근래의 양화로서는 가장기대되는 작품이다 이작품은 이십팔일부터 내년일월팔일까지속영된다 다음주별로 상영될송죽(松竹)영화를 열기하면

★第一週(二十八日부터)佐分利信、高杉早苗주연의 "빼타는아가씨"
★第二週(四日부터)田中絹代、川崎弘子、高峰三枝子주연의 "어머니의노래"
★第三週(九日부터)藤井貢、高杉早苗、突貫小僧、주연의 "惡太郞" "田中絹代、高田浩吉 주연의 "新類兵人劍吉"

若草劇場 內外의名畵로는 紅薔薇行進曲 月下靑年武士

★紅薔薇行進曲ー"메트로"푸로의 가수로 유명한 "그래ー스 무어"주연의음악영화로 감독은 『네가지鍾愛』를 감독한『에드워ー드·그리피스』다 이 작품은 팔일부터 상영될터인데 이영화에는『椿姬』『마농』『마르타』『蝴蝶夫人』들의 가극중의 노래가 나온다

다시주별로따저서 상영프로를 보면

★第一週(三十一日부터)山本薩夫감독으로大河內傳次郞、山田五十鈴주연의『新編丹下左膳』『에노겐(榎本健一)江戶川蘭子주연의『깡삭이에노겐人生』
★第二週(一月四日부터)長谷川一夫、花井蘭子、久千惠子주연의『月下靑年武士』『하와ー드、휴ー즈』감독으로 『지옥의 천사』(地獄의天使)
★第三週(八日부터)『그래ー스 무어』주연의『紅薔薇行進曲』외에 榎本健一주연의『엉내는 에노겐戰線』이외에에드레金출동시상연한다

黃金座 『로어드의喜劇』『라디오의歌姬』外에는日活作品

★로이드의埃及博士ー로이드의히트작은 영화가수입된이후 산년의 오락영화로반드시 상영되어왓거니와 오는해에도『로이드』가 등장하게된것은 일반영화팬에게잇서서는 도한반가운 소식이아닐수업다

★라디오의歌姬ー세계적프리마돈나인『릴리·폰스』주연작품으로『E·호ー톤』과『쟈크·오ー키』주연의 오락적영화다 춤과노래가 흥미중심으로 호화로운진용의 전개가잇슬것이다

다시 신년의영화진영을보면

★第一週(三十一日부터)『로이드의埃及博士』외에 阪東妻三郞、花柳小菊주연의『赤垣源藏』
★第二週(四日부터)로이드의속영(續映)외에 片岡千惠藏 杉狂兒 닥·미네·주연의『노래하는 彌次喜多道中記』
★第三週(八日부터)릴리 폰스의『라디오歌姬』외에嵐寬壽郞等주연의『鞍馬天狗』村田知榮子등주연의『祖國의新婦』

(사진은 상으로부터『大都會』『에노겐의人生』『라디오의歌姬』)

藝苑消息

氣賀志郞氏(現像技師)는朝鮮映畵令政府撮影所主任技師로昨二十五日赴任하얏는데 氏는東京映畵研究所와京都제·오·타보라토리의出身인新銳라고한다

라디오프로그람

二十七日(火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 라디오體操(同)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 時報
◇午後零時五分 歌謠曲(레코ー드)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어린이와感氣』 趙演英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 傳記이야기『十二月에난偉人』 金斗基
◇同六時一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겨울의山岳』 金命錫
◇同七時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昭和十三年回顧)(七)『敎育界』 梨花高女校長 辛鳳祚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박打鈴中에서 제비나오는데 廣周彦 鼓手韓成俊
◇同八時三〇分 舞台劇ー京城府民館으로부터中繼ー『地熱』ー三好十郞作ー朴鄕民飜案 演出 李光來 浪漫座
◇同九時一〇分 歌曲 一、羽調 頭擧 二、中擧 三、弄 四、羽樂 五、還界樂 六、編 朴鳳玉 金蘭紅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illegible]
◇同九時三〇分 뉴ー스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ー스解說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李完應
(終)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城)謠曲

二十八日(水曜)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料理法 연육캇트릿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同九時五五分 京城歌謠 一、제비歌 二、바위打鈴 三、춘초 四、맹꽁이打鈴 [illegible] 金光秀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 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明日番組

◇同六時(大)童話劇
◇同六時二五分(東)生活改善講座
◇同七時三〇分(東)歌謠
◇同七時四〇分(自北京)
◇同八時(東)合唱
◇同八時三〇分(東)時局讀本
◇同八時四〇分(東)靑年時間 田均
◇同九時一〇分(東)小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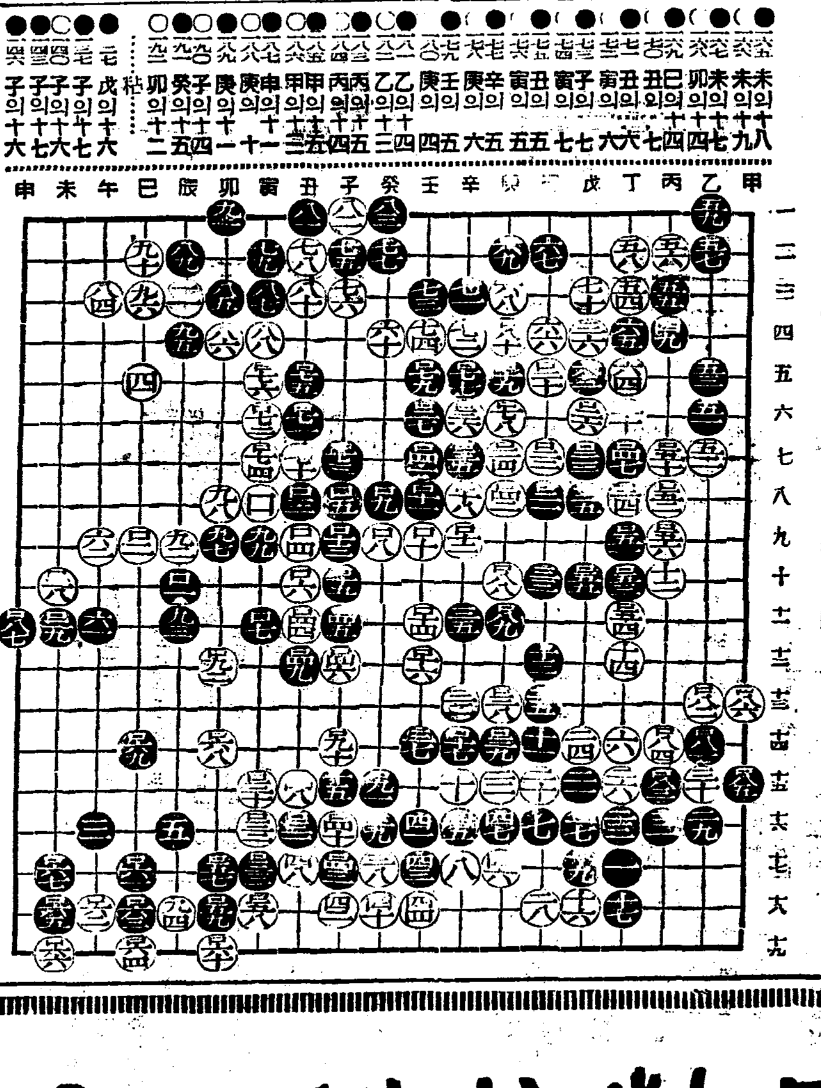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輕音樂(레코ー드)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지나간一年을도라보고』 誠信女學校長 李淑鍾
◇同四時 뉴ー스 職業紹介
◇同六時 管絃樂 一、어엽븐퓨괴드 쉴레에그렐作曲 二、사랑의樂園 이바노비츠作曲 三、音樂의瞬間 슈ー베르트作曲 四、勝利 도바니作曲 五、結婚圓舞曲 뿔롬작曲 六、君主行進曲 로렌드作曲 京城放送管絃團
◇同六時二五分 指揮 洪蘭坡
◇同六時三〇分 어린이新聞 講演『겨울의氣象』 韓仁錫
◇同七時 뉴ー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昭和十三年回顧)(八)『運動界』 朝鮮日報 高鳳梧
◇同八時(東) 室內樂 一、바이올린奏鳴曲 第二番 尾崎宗吉作曲 바이올린 加藤爲二郞 피아노 中村하마 二、풀루ー트 클라리넷트 파곳트를爲한 二重奏曲 淸瀨保二作曲 풀루ー트 宮田淸藏 클라리넷트 汁井富藏 파곳트 上田仁
◇同八時三〇分 (李) 라디오드라마『꿈꾸는사람들』 李[illegible]作 宋[illegible] 李[illegible]
◇同八時五五分 歌謠曲(레코ー드)

二十九日(木曜)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宋今璇
(終)
◇午前七時五〇分 皇居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一分(東)라디오體操
◇正午(東) 時報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午後零時〇五分(大) 吹奏樂 大阪市音樂隊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指揮 林巨
◇同四時 뉴ー스
◇同六時 童話『날개달린토끼』 朴仁範
◇同六時二五分 라디오時局讀本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신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나、古往今來 朴東俊
◇同八時(東) 杖鼓 朴鍾基 管絃樂 [illegible]
◇同八時 歌劇『원자ー의快活한女子들』 序曲 니콜라이作曲 二、圓舞曲『南國의薔薇』 요한슈트라우스作曲 三、歌劇『아이ー다』ー凱旋行進曲ー 베르디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 西道歌謠 一、新아우그스·트용켈 指揮 楚漢歌 二、긴밥打鈴 三、달밤의배노래 四、淸川江水 五、海州念佛 宋蓮花 閔享植
◇同九時 라디오드라마『城壁』

素人對抗基譜 (11)

白 李相基
黑先 張暻根



勝負는아직未判 黑의野戰鹵獲이만허

權榮

黑一六五는(受)방고 白一六六(刺)재처니 黑一六七이 도루것게(繼)되엿다 그러고보니 斷點은 不遠이다 前回에 豫告한바와가티 黑家는 自然주리지고 따라先手까지 빼끼게된다 그러나 白一六八은 好機를 利用하야 黑의 南下를 에 잠시 侵略을行하니 黑은 甚意를이 너무 甚하야 讓步가多少 조하잇다 換言하면 的確한 決算을 헤아리지못한 所以인가 是故로 黑一六九는 徒勞無功이다 白一七〇이 丑의七로 寡込하니 黑一七一이 交換할心算으로 白軍허리(腰)를 공격하나 수만은 조코나 白一七二는 現今 處地로써 二三目을 渴求함이 아니라 護避之하야 實의大에 完勝을 期하엿다 黑一七三은「아다리」로막고 白一七四는 단수리잇고보니 白의南下는 自由作家가 甚大하다 黑一七五는 淸心하야 白陣으로 侵入하나 白은 珍重한 態度로 一七六에 따라막으니 일로조차 府陣工作은 다됨한 셈이다 黑一七七은 東中部로 移動하야 白의 兩路를 活動하니 白一七八이 一友軍을 活連하매 黑一七九도 二子를 救出하엿다 저河海가 不擇細流하나니 兩將은 조금도 放쫒치말고 終始 貫徹하기를 바란다 白一八〇은 庚의四로 左右를 連結하니 牢不可破이며 黑一八一은 北下해로 旋回하야 白의 一點을 夾擊하니 現勢는 五내긴 細密은 이만한 要點이 無하다 白一八二는 孤軍되는 走馬를 縣念치안코 乙의二三에 防禦하니 黑으로서는 所謂「英雄이 無用武地」格이다 할수업시 一八三으로 白一畢을 모르니 白一八四는 丙의一四로 어서 實施한다 黑一八五의 고白一八六에스니 北部도 處處陵한 功이 되엿다 漫方度分에는 黑이 有利하므로 滑徹되고 따라先手를 어덧스나 어느곳에 獲得者가잇는지 決意款思하니 終乃 局手에 뛰어오른다 그러나 到今하아서는 變化되엿이 一八七이 最後로 申의一一에 (申陽侯)를 封鎖하니 平素巨腕을 참으로 發貸하여마지안는다 白一八八에 黑一八九와 白一九〇도 黑一九一과 白一九二는 모두 散兵戰으로 東奔西走하야 恍惚難測이다 末期戰이 應迫한이때 細密을分察하면 黑의 野戰鹵獲이 조금만어 勝負는 아직確的판결은할수업다 다음回를볼까

御贈答には 日魯の實質的な罐詰! あけぼの印 さけとカニを
(아께보노 인 연어와 게를)

製造元 東京 日魯漁業株式會社
發賣元 東京 株式會社北洋商會

素の味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맛잇는料理製法A.B.C는

처음부터끝까지 손쉽고경제롭고 맛잇게하는 아지노모도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婦人良藥 母之命

七大博士가藥効證明

好評 이藥은二十餘年間信用과藥効가第一조타는好評을엇고잇습니다

(藥効) 월경이불순하고 대하증이흘으고 수족이냉하고 허리와아래배가압흐고 얼골에는화색이업고 이외가튼부인병에 잘복되여서 애기를못낫는분은 지금속히 지모를복용하시면 약효가조와서 귀여운애기를날수잇습니다

藥價 七十日分 十圓 卅五日分 五圓 二十日分 三圓 十三日分 二圓 六日分 一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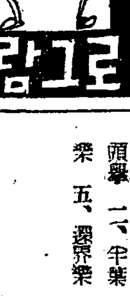
各地藥店에서販賣中

笹岡省三藥房

醫學原理에合致된 世界的强壯劑 ネオトン 네오톤

桃花劇場 電話
流轉 前後篇 大會 主演 坂東好太郞 森靜子
◇松竹京都超特作品 二川文太郞氏監督作品
◇パラマウント映畵社作品 ロバトフオリイ氏監督作品
黎明の丘 主演 ワレンウイリアム カレンモーレイ ルイズストン
次週豫告 明の朝鮮 各社ニュース
特別豫告 殺人石船 戰友 女のいのち 新道 白日鬼 前後大會
◇皆樣御待兼ねの名畵上映◇
十二月二十六日부터二十八日까지 每日晝夜二回

補陰强陽秘方山藥 精力丸
京城西大門町 圓岩合資會社

本報安東縣支局
安東縣官電街十三號
長電話三七四四番

映畵は日活 偕樂館
(二十二日より四日間)「新春開放 一周年記念特別」
◇日活京都大作 地獄の虫 稻垣浩 監督 主演 市川百々之助 坂東好二郞
◇日活多摩川 女の世界 主演 黑田記代
暁の爆撃 主演 ペンライオン ニュース